

삼성·SK, 합산 영업익 200조 전망… ‘오천피’ 기대감 고조

코스피 4400 돌파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29)씨는 지난 2일 삼성전자가 ‘12만전자’ 수준까지 오르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박씨는 “시장에서는 16만원까지 간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워낙 빠르게 올라서 무섭기도 하고 이만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연말이 지나고 나서 한 번 조정이 있을 것 같아 우선 주식을 팔았다”고 했다.

동학개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거침없이 치솟자 ‘이만하면 충분하다’며 발을 빼는 개미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며 빛투에 나서는 개미들이 시장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본격적인 반도체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이 시작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올해 영업 이익 합계가 2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반도체가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부를 늘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16만전자·80만닉스’ 짚주

5일 삼성전자 주가는 7.47% 상승한 13만81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2.81% 상승한 69만6000원을 기록했다. 반도체는 이날 코스피를 4400선에 올려 놓았다.

하나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4만원에서 15만5000원으로 상향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맞춤형 AI 칩 자체 개발 이슈도 있다. 구글의 텐서 처리장치(TPU)가 대표적이다. 오픈AI는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섰다. 아마존웹 서비스(AWS)는 ‘트레이니엄3’를 개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AI 칩 ‘마이아200’을 출시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를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 5공장(P5) 공사에 착수한다. 2028년까지 완공해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최소 60조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총 4개의 패(공장)을 짓기 위해 최소 128조원을 투자 한다. 마찬가지로 HBM 등 고부가 가치 메모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다.

시장에선 코스피 5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다른 섹터로 확산된다면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수급 환경에 부담이던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올해 기업 실적은 기존대로 주가 상승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AI 성장 기대와 함께 실적 개선 및 수출 호조가 기대되는 반도체 업종을 추천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본격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증권가, 삼성·SK 목표주가 줄상향 투자자 ‘차익실현-신규진입’ 줄타기

조정했다. KB증권은 16만원을 제시했다. JP모간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SK하이닉스 목표주가는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렸다.

반도체주가 질주하는 것은 실적 기대 때문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전망치를 107조6120억원으로 상향했다. 대신증권은 110조원으로 전망했다. iM증권은 같은 기

간 SK하이닉스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 전망치를 93조8430억원까지 끌어올렸다.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91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외국 증권사는 전망을 더 밝게 본다. 모건스탠리는 ‘메모리-최대 가격 결정력’ 보고서를 내고,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을 116조448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 중 반도체 부문(DS) 영업이익은 94조6250억원으로 예상했다.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이보다 더 높은 135조2200억원,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 전망치는 109조8960억원이었다. 모건스탠리는 “AI 인프라 투자 규모와 하이퍼스케일 고객 동향을 고려할 때 D램 최고 가격은 2018년 초 클라우드 빙 슈퍼사이클을 최고

치를 넘어설 것”이라며 “핵심 질문은 메모리 부문의 이익이 2027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인가이고, 이는 2026년 중반 상황에 달려 있다”고 했다.

◆ 기업 실적 기반 주가상승 전망

장밋빛 실적 전망의 배경에는 HBM 이 있다. 제품 단가가 높은 HBM 공급이 늘어나고 범용 D램 가격을 끌어 올릴 것 이란 분석이다.

UBS는 글로벌 AI 자본지출(CAPE X·설비투자)이 올해 4230억달러(약 625조원)에서 2026년 5710억달러(약 84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앤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가속기 수요가 늘면서 HBM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네이버, 검색 점유율 60% 회복… AI 전략 주효

플랫폼 체류 중심 검색기능 재설계 AI 브리핑 도입 등 정보 신뢰성 제고

국내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의 지배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네이버가 지난 해 60%를 넘는 검색 점유율을 기록하며 구글과의 격차를 다시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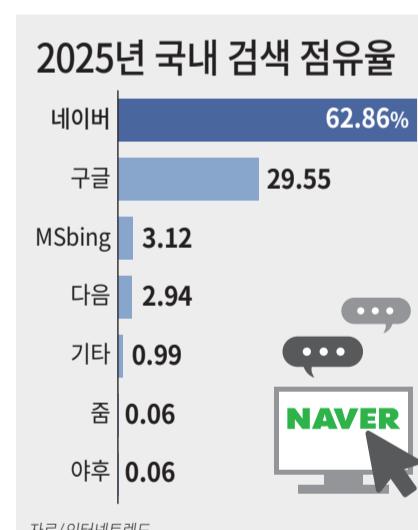
5일 시장조사업체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2025년 네이버의 국내 검색 점유율은 평균 62.86%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58.14% 대비 4.7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네이버 검색 점유율이 60%를 넘어서는 것은 2022년 61.20% 이후 3년 만이다.

반면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전년 대비 3.45%포인트 감소한 29.55%를 기록했다. 두 플랫폼 간 점유율 격차는 1년 사이 다시 확대되며, 국내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이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マイクロソフト 검색 엔진 빙은 3.12%로 3위를 차지했고, 다음은 2.94%로 뒤를 이었다. 줌과 애후 등 기타 검색 서비스는 점유율 1%를 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이번 점유율 반등을 단순한 일시적 회복이 아니라 검색 전략 전환의 결과로 보고 있다. 네이버가 검색을 정보 탐색 중심에서 문제 해결형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며 이용자 체류 구조를 바꿨다는 분석이다.

네이버는 지난해부터 생성형 AI를 검색 결과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이용자



가 여러 사이트를 오가지 않아도 핵심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해왔다. 특히 쇼핑, 지도, 로컬 정보, 예약 서비스 등을 검색 결과 안에서 직접 연결하면서 검색 이후 행동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다.

이 같은 변화는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했다. 뉴스, 카페, 블로그, 쇼핑 등 일상 소비 정보 탐색에서 네이버를 선호하는 국내 이용자 특성이 검색 체류 시간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외부 링크 중심의 검색 구조를 유지하는 구글과의 차별화 지점으로도 꼽힌다.

네이버 검색 반등의 핵심으로는 AI 브리핑이 지목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AI 브리핑을 본격 도입하며 검색 신뢰도 제고에 힘을 실었다. 특히 10월 선보인 건강 분야 특화 AI 브리핑은 상급종합병

원, 공공기관, 학회 등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를 기반으로 전문 내용을 요약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난해 AI 브리핑 최다 생성 검색어 주제 중 하나가 건강 정보였다.

공공 분야 특화 AI 브리핑 역시 공공기관 공식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며 신뢰도를 높였다. 이어 11월에는 증권정보특화 검색을 출시해 기업 동향과 실적 발표, 전문 콘텐츠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AI 전략에서도 네이버는 한국어 특화 모델을 전면에 내세웠다. 글로벌 범용 모델보다 신조어, 지역 기반 질문, 맥락형 검색에 강점을 보이며 국내 이용자 체감 정확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여기에 검색 광고와 콘텐츠 노출 간 경계를 조정해 이용자 피로도를 관리한 점도 점유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검색을 단순한 유입 창구가 아닌 플랫폼 체류의 중심으로 재설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색 이후 정보 확인, 소비, 예약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구조가 이용자 이탈률을 줄였다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AI 브리핑을 확장하고 있다”며 “차별화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네이버만의 AI 검색 경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美 금리 불확실성 확대… 韓 인하 속도 제약

15일 금통위 회의 이목집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나오면서 미국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새해 초 다시 부각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올라 한국은행이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맞지 않는 수준”이라고 진단한 상황에서 미 금리 방향성의 불확실성이 한은의 완화(인하) 속도를 다시 제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앤나 폴슨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학회 행사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3.50~3.75%)가 “약간 제약적(slightly restrictive)”이라고 평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완만히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후반에 한해 “소폭의 추가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추가 인하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take a while)”며 성장과 고용을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슨 총재는 물가가 연말로 갈수록 2%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면서도 상반기에는 관세 관련 요인이 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해 데이터 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환율이 통화정책 논의의 상단을 규정하는 분위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달러 1400원대 후반을 두고 “최근 환율 수준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한·미 금

리 격차 확대에 대해 국내 달러 수급과 기대심리 요인이 약세 압력을 키웠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해외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 수요가 시장 수급에 영향을 주는 구조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연준의 인하가 늦어질수록 국내 경제가 민감해지는 이유는 금리차와 환율 기대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미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 한·미 금리 격차가 오래 남아 달러 선호와 해지 수요가 쉽게 꺾이기 어렵다. 원화 약세 기대가 커진 국면에서 한은이 선제 인하에 나설 경우 환율 변동성에 대한 경계가 커질 수 있다. 한은도 최근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서 향후 인하 여부와 시점은 성장·불가뿐 아니라 외환시장 변동성, 금융안정을 함께 점검해 판단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하고 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다. 기준금리 자체보다도, 한은이 환율 변동성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향후 완화 속도에 대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내놓는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고용보고서(1월 9일)와 CPI(1월 13일), 한은 금통위(1월 15일)가 연쇄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원·달러 변동성이 쉽게 꺾이지 않으면 한은의 완화 속도는 더 보수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한은은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필요 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